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박치경



'2040(20대~40대 세대)'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 우습게 여겨질 것이다. "슈퍼스타 K3'에서 우승한 울랄라 세션과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라고.

젊은 세대라고 해서 무조건 정치인을 즐겨볼 것이라는 생각은 편견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분위기로는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울랄라 세션보다 후한 점수를 받는다는 것은 기대 난이다.

감동 받아야 눈길

'안풍'(안철수 바람)의 진원지인 '2011 청춘콘서트'를 기획했던 법륜 스님이 엮은 그제 한나라당을 찾아가 던진 한마디는 젊은이들이 현실에 보내는 시선을 압축한다. 법륜 스님은 "요즘 젊은이들은 정치나 종교·시민단체에 관심이 없고 모두 '콘대'라고 한다"고 일갈했다.

여기에서 콘대는 과거 청년층에게 일일이 간섭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기성세대를 뜻

하는 개념 위에 한 가지가 더 얹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젊은이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투표로 본패를 보여주자 화들짝 놀라 개혁을 부르짖으면서도 속내는 제 살길만 찾는 정치권에 그들의 심경을 함축해 날

'2040'에게 선택 받으려면

리는 냉소다.

정치인들보다 후한 점수를 받는 울랄라 세션을 들여다 보자. 울랄라 세션은 실력에서 일찌감치 우승이 예상됐던 터에, 특히 지난 1월 위암 진단을 받은 임윤택의 리더십은 큰 '감동'을 몰고와 청중을 사로잡았다.

임윤택은 지난 6월 수술을 통해 위와 십이지장을 잘라냈지만 우승 직후 무대에서 눈물 대신 웃음을 보여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젊은이들이 울랄라 세션을 정치인보다 더 훌륭하게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꾸며낼 수 없는 감동이 곧 젊은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큰 무기다.

울랄라 세션의 감동은 안철수 교수로 이어졌다.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후보를 양보해 감동을 안긴 안 교수는 지난 14일 자신이 보유한 안철수연구소 주식 절반인 1500억 원 상당을 사회에 환원기로 했다. 일부에서는 본격적인 정치 입문의 신호탄이라는 시선도 있지만 안 교수의 기부는 우리 사회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받아들여진다.

안 교수는 자신이 머리와 발로 만든 거대한 부를 사회에 돌렸다는 점에서 우리 기부문화를 업그레이드했다는 평까지 파고 있다. 울랄라 세션이나 안철수 교수는 젊은이들의 가슴에 기존의 정치권에서 느낄 수 없었던 울림을 전해주었다. 정치인들이 도저히 흉내 내기 어려운 신선한 감동을 전해주는 이들을 높게 점수 매기는 것은 당연지사다.

2040이 유독 감동에 민감한 것은 '마이너스 청춘'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가계금융조사' 결

과 20대 이하 가구주의 평균 부채는 2597만원으로 나타나 1년 전보다 34.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상의 주역으로

30대도 자산의 22.2%에 이르는 빛을 띠고 있다. 이처럼 팍팍한 현실에서 젊은이들은 정치인이나 기성세대가 감동을 주고 탈출구를 마련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포기한 듯하다. 여아가 2040의 마음을 얻기 위해 혁신을 들고나왔지만 정착 제법그릇 쟁기에 급급하다는 소식이 절망할 뿐이다.

따라서 2040들은 감동을 주고, 삶에 헛살을 비취줄 가능성이 큰 대상에 열광할 수밖에 없다. 급기야 정부와 여당이 2040과의 소통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각 분야의 몇몇 젊은 스타급 젊은이들을 영입하겠다는 취지로 예산을 편성했다.

2040과의 교감은 비단 정치권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행정, 기업, 대학 할 것 없이 2040을 감동시키지 못하면 곤란하다. 2040은 중요한 고비 때마다 결정권을 행사하며 우리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시설

역사교과서 수정 거스를 수 없는 순리다

정부가 중학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역사를 왜곡한 데 이어 다음달 마련할 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도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집필기준이 수많은 시민들의 회생 속에 일궈낸 민주 역사를 삭제하는 대신 친일·독재 부분을 숨기거나 미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422개 시민단체는 14일 '친일·독재 미화와 교과서 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를 발족했다. 광주지역 80개 기관·사회단체도 5·18민주화운동 강제 철회를 주장하는 회의를 열고, 가운데 광주시장 등 대표단은 정부 부처 등을 방문해 집필기준 폐기와 교과부 장관 사퇴 등을 요구했다. 정부의 역사왜곡이 개선 저항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대다수 역사학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이번 처사는 한마디로 역사와 상식에 대한 도박이나 다름없다. 5·18민주화운동이나 6·10항쟁이란 표현을 쓰지않도록 하는 게 문제의 집필기준이다.

교과부는 14일 설명회에서 실제 집필 때는 자율적으로 서술할 수 있다고 항변했지만 역시충량이다. 대원칙인 기준을 그대로 두고, 권장성 발언만으로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겠는가. 교과부 장관도 광주 대표단의 폐기 요구에 대해 "검토해보겠지만, 권한 밖의 일"이라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이처럼 이 정권의 의도가 이미 드러났는데 출판사까지 권고 기준에 없는 내용을 삽입할 리 만무하다.

이런 점이 다음달 고교 새 역사교과서 기준 마련 때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가 이의 폐기를 주장하며 저항의 강도를 높이는 이유다.

이래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의 식을 제대로 심어줄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이번 처사는 한마디로 역사와 상식에 대한 도박이나 다름없다. 5·18민주화운동이나 6·10항쟁이란 표현을 쓰지않도록 하는 게 문제의 집필기준이다.

검찰, 총인시설 담합비리 철저히 파헤쳐야

광주시가 발주한 982억 원대의 총인처리시설(오염저감시설)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공무원과 건설업체 간부 간에 '검은 거래'를 언급한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녹취록에는 공무원 반모(4급)씨가 지난 5월 중순 광주시내 모 식당에서 시공사로 선정된 대립산업 관계자 등 3명과 만나 사전 담합했던 내용과 금품을 요구하는 정황이 담겨 있다.

녹취록을 보면 "X씨라 갈 때와 을 때가 다르던 안 된다. 각 200 총 10억이다. 깎으면 안돼, 달라"라며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는 대목도 나온다. 공무원들의 담합비리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렇게 대담하고 노골적이라는 데 말문이 막힌다.

또 일부 설계심의위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했다는 부분도 언급돼 있다. 시 고위 관계자가 입찰에 선정된 업체를 반씨에게 소개했고, 반씨가 대립산업을 밀어준 것을 감추기 위해 의도

적으로 다른 업체에 높은 점수를 줬다는 내용이다. 대화에는 정보기관 관계자, 공무원 심사위원 등의 이름도 등장하고 있다.

광주시 발주 사업이 이 정도로 비리 북망이라면 그야말로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이 감리·감독을 제대로 할 리 만무하고, 공사 부실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고양이에게 생산기계를 맡긴 격이 아닌가.

광주시는 반씨를 부러부러 직위해제 조치를 했지만 그 정도로는 안 된다. 감사를 통해 실체를 밝혀내야 할 것이며, 녹취록 내용이 사실이라면 관계자 파면 조치와 함께 시공사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아울러 비리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 개선과 연대책임을 묻는 등 특단의 대책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검찰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담합비리를 파헤쳐야 한다. 이번 수사가 시민단체의 끈질긴 추적에 따라 이뤄진 만큼 산업을 밀어준 것을 감추기 위해 의도

은펜칼럼



심상돈

오늘은 아버지진료차 병원에 가는 날이다. 1년 전 당뇨, 고혈압과 함께 당뇨의 결석으로 수술 후 추적관리 중이시다. 2일 전 및 병원방문 하루 전인 어제 병원 진료예약 확인, 예상 소요시간 및 비용 등에 대한 문자 메시지가 아버님과 제1보호자로 등록된 나에게 보내져 왔다.

진료예약시간 30분 전에 병원에 도착하였다.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뒤 마중 나온 조그마한 전동차로 병원 로비까지 안내를 받았다. 병원로비에 들어서자 전방의 전광안판에 병원방문을 환영하는 메시지가 보

내가 가고 싶은 병원

인다. 나와 아버님의 주머니 속 병원진료카드를 스캔하여 방문을 확인한 것이다. 이미 병원에 온 것이 확인되었기에 일상적인 원무과 점수를 위한 대기절차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진료실이 있는 5층으로 향하였다. 대기실은 아늑하고 몇 명만 진료를 대기하고 있어 한산하고 여유로웠다. 벽면의 대형 전광판에는 각종 질병에 대한 소개와 함께 병원의 진료안내 및 전문센터에 대한 홍보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다. 몇 분의 대기 후 진료실에 들어서자 담당의사가 환한 웃음으로 환대해주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진료가 시작되었다.

그동안 집에서 측정하였던 혈당 및 각종 검사 수치는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진료 전 이미 담당의사의 컴퓨터에 전송이 되어 있었다. 그동안 혈당 및 혈압 등이 정상 범위 내에서 잘 유지되었고 수술 부위에 특별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술 후 1년째 초

음과 및 컴퓨터 단층 촬영을 검사실로 이동하였다. 영상의학전문의로부터 간단한 검사에 대한 사전 설명 및 검사에 걸린 시간은 채 20분이 안 되었다. 검사 후 담당의사로부터 특별한 이상이 잘 유지되고 있음을 설명들은 후 1년 뒤 다시 만나기로 하였다.

1년 동안 집에서 해야 할 혈당 및 혈압 등에 대한 정확한 검사 방법을 다시 배우고, 매달 검사시기로부터 스마트폰으로 검사 결과가 전송되고 스마트폰에서 병원의 진료용 컴퓨터 서버로 전송되어 담당 의사를 포함한 진료진이 확인하고 약간의 이상이라도 발견되면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가고 진료를 할 수 있다고 설명 들었다.

또한, SNS를 이용해 담당의사와 상시적인 소통이 가능함을 설명들었다. 고령의 아버님의 시각 및 청각적인 제약으로 소통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1보호자인 나에게도 같은 내용이 전해짐을 설명들었다. 1년 뒤 예약을 확인하고 로비에서 주차장으로 안내를 받은 뒤 집으로 향하였다.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오늘 진료의 만족하는 정도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여 스마트폰을 통해 전송하고, 진료비가 은행계좌로부터 이체되었다는 메시지를 은행으로부터 받았다.

사회 전반에 SNS가 급속하게 접목되고 있는 상황에 이처럼 SNS를 통해 고객이 병원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SNS를 이용하는 고객은 병원 홈페이지나 웹사이트 검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술 정보 등을 스마트폰을 통해 얻으려는 것도 있지만 네트워크에 의한 편리한 상호간의 발견되면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가고 진료를 할 수 있다고 설명 들었다.

또한, SNS를 이용해 담당의사와 상시적인 소통이 가능함을 설명들었다.

(동아병원장)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고

수능시험을 마친 지역 청소년들에게



정남준

연례행사의 하나로 온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킨 '2012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다. 이제 막 첫 관문을 통과한 수험생과 가족,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번 수능시험에 불참한 청소년 등 모두에게 이제 새로운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 온 것만은 틀림없다. 매년 수능이 끝나고 나면 시험을 잘 치른 수험생들은 물론, 시험을 잘 치르지 못한 수험생들까지도 입시전문기관의 예상 합격점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수능 성적에 자신의 일생을 좌우하려하는 착각에서 엄청난 후회나 좌절에 빠져들기도 한다.

수십 년간 입시제도가 수없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적의 대학입시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청소년들을 계속 입시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에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우리가

라의 지나친 학벌 존중의 풍토와 출세 지상주의를 탓할 수만은 없지만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이 파멸에 이르고 있고 교양인의 양성이나 시민교육은 입두도 내지 못하는 현실임에 분명하다. 더구나 치솟는 사교육비로 말미암아 학부모들의 마음까지도 피폐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게 힘들게 대학에 들어가더라도 '반값 등록금' 논란에서 보듯이 비싼 학비와 낮은 취업률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을 더욱 좌절케 한다.

하지만, 이번 수능을 끝낸 지역 청소년들에게 이제는 세상을 좀 더 새롭고 크게 바라보라는 충고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바로 눈앞에 달릴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실망스러운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살아갔느냐에 따라 인생학회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요즘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10년 후, 20년 후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전개되리라 확신한다. 사회변화 트

랜드를 감안할 때 현재 각광을 받는 직종이 순식간에 인기없는 직종으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바로 앞의 명성만을 바라보고 소위 스펙 쌓기에만 열중하다 보면 자신의 삶은 온데간데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인생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할 여러분의 승부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앞으로는 인생 2모작이 아니라 인생 5막의 설계가 바람직할 것이다. 평생직장이나 평생직업이 아니라 평생 현역으로 살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 평생토록 서책을 수 있는 자격증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직종 변화에 주목하면서 '진짜 공부'를 하라고 권하고 싶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과정이므로 가끔씩 어떤 분야에 뛰어들는, 하고 싶은 분야의 일을 택하기를 원한다.

수능에 의한 일시적인 '학교 줄 세우기'가 인생의 성공이나 실패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끊임없이 자기개발과 변신을 해나가는 자세로 임하려는 것이

다. 인생이란 장기 레이스를 하다 보면 반드시 서너 번의 역전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어떤 자리에서든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좋은 기회가 다가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길 바란다.

'미래에 대한 꿈'이 없는 젊은이는 젊은이가 아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젊은 세대에 대한 평가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자신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청소년들이 있는 반면에 부모에게만 의존하는 소위 썩어부러진 연애, 결혼, 출산을 싫어하고 포기하는 '3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앞으로 여러분이 맞이할 세상은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다문화사회의 추세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류 열풍의 부가가치가 크게 증대되리라는 사실 또한 명확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통신기술(IT)의 발달에 따른 스마트시대가 한동안 지속하리라는 점이다.

인터넷 공간에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는 동시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을 갖추고 여러분의 꿈을 설계해 나가길 바란다. 청소년 여러분의 어깨에 우리 광주·전남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다.

(조선대 초빙교수·전 행정부차관)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이런 효능을 올렸다가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불려가 조사받고 벌금을 무는 사례도 많이 있다고 한다. 인삼이 성인병 예방에 좋고, 배가 전식과 변비 예방에 좋고, 오가피는 혈액순환에 좋다는 사실 등 우리 농산물이 갖고 있는 여러 효능은 이미 다 아는 것들이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규제해 효능을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뽕잎만의 경우가 아니라 이런 수많은 농산물의 의학적, 건강학적 효능, 즉 객관적으로 입증된 내용이 아무 규제 없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박나영·광주시 남구 구소동

효능 입증된 뽕잎 인터넷 홍보 금지 답답하다

고향에서 부모님이 누에를 기르신다. 누에에는 누에 고추 생산으로 소득을 올리고 동충하초도 생산하고, 뽕나무에서는 오디와 뽕잎으로도 농산물 가공품을 만들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한 농산물로 여겨진다. 필자도 어렸을 적 부모님을 도와 누에를 키워본 경험이 있다.

그런데 뽕잎을 인터넷에 소개하고 그 효능을 알리고 싶어도 법이 가로막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고 속이 상한다.

죽 뽕잎이 고혈압과 당뇨에 좋다는 사실은 동의보감이나 분초감록 같은 우리의 유명한 전통 의서에 다 나와있는 내용이다. 또한, 거기에 의하지 않더라도 그 효능이 대학 병원이나 각종 농산물 관련 국가 연구기관에 의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모두 다 입증된 바 있다. 그런데도 식품위생법에는 이렇게 검증된 사실조차 홍보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니 농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심지어 그런 사실조차 모든 채 인터넷에

Advertisement for '슈퍼내추럴' (Super Natural) featuring a cartoon character and text about natural products and health benefits.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publication details.